

慈愛恩澤 詠懷思念

◎ 黃惠蘭點傳師
韓譯：廖培君



夕陽西下，落霞滿天，倦鳥歸巢，寒意晚風訴盡著後學對老前人您的思念。老前人啊！後學好想好想您呢！儘管心中深深的吶喊，卻再也喚不回慈祥的您。

您經常慈祥的一句：「惠蘭，你來了！快點進來！」

雖是稀鬆平常的話語，卻如一股暖流注入心窩。您總會緊緊握著後學的手、摸摸後學的頭、噓寒問暖，有時甚至會慈愛的抱一抱後學，感覺是那麼的溫馨與幸福。

您對後學們的關愛，點滴在心頭。您常常慈悲地問及後學家中的大小一切平安與否；您還記得嗎？921地震當天中午，您老人家惦記著身居高樓中的後學，百忙中還不忘打電話關心後學家中是否平安；讓後學真是慚愧，不僅未能向您即時問安、反而讓您憂心，真是汗顏啊！您老人家聲聲的關懷言猶在耳，而今已是天人永隔，撫今憶往點滴在心頭，增添後學對您無盡的思念。

黎明時，黃昏裡，
麗水街的永康公園、忠恕道院的中堂、大廣場、
前庭花園、後山公園、大溪的蘭花園、陽明山公園，
有著後學攙扶您走過的足跡，
也有您與後學歡笑談心的聲音，
客廳裡有您清唱著四郎探母的思母之情，
餐桌上有您愛物惜福的感恩心，
開車中有您句句小心的叮嚀呵護，
中堂中有您為眾生祈福的叩首聲。

자애은택 영회한 상념

◎황혜난 점전사님

번역자:요배군

석양이 내리고 하늘은 저녁노을로 가득했습니다. 밖에 있었던 새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선생님한테 저의 상념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 ~ 정말 보고 싶습니다.” 마음 속에서 이런 소리를 외치고 싶지만 선생님의 자애로운 소리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혜난이, 왔어~빨리 들어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비록 평범하지만 제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제 손을 잡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 지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느낌이 무척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주시고 사랑을 많이 주셨던 일이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장노전인께서 늘 우리 집의 안부를 자비롭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921지진(구월 이십일일에 지진) 때 그 날 점심 때는 선생님께서 저는 높은 아파트에 사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로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창피합니다. 저는 선생님께 안부를 묻기는 커녕 걱정거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관심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제 귀 옆에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선생님이 이미 성도하셨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면 선생님한테 상념이 점점 커졌습니다.

새벽 때 . 황혼 때, 麗水街에 있는 공원 . 충서도원 노모님을 모시는 본당. 앞마당에 있는 꽃밭.....등 여러 장소에서 저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던 발자취가 있고 선생님과 같이 얘기하는 소리 아직도 거기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 선생님이 “사남탐모四郎探母”라는 경극 가곡을 부르는 소리가 있고 식탁에서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아끼는 마음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 선생님이 저한테 “조심하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모당에서 선생님께서 중생들 위해 기도하는 고수 소리가 있습니다.

猶如昨日之事，歷歷在目，

老前人啊！

您為眾生頂劫、擔業、受盡苦楚，

卻從沒聽過您一聲的埋怨或嘆氣。

記得有一次在台大醫院，您老因為肺部積水要抽水，後學抱著前人您坐起來讓醫生治療時，後學告訴您說：「一下下就好，沒關係，忍一下就過了。」

當後學看到二十多公分的長針插入您的背後時，心想：「一定很痛很痛，老人家您怎麼能忍受啊！」但前人您卻是堅強忍住不出一聲，讓後學紅了眼眶。老前人您的一生中，一定歷經過無數次比這更痛苦、更顛沛流離的經驗，才能用這種堅毅不拔的精神，在修辦道中一路披荊斬棘走過來。

有一次也是在台大醫院，當時只有後學隨侍在您的身邊，碰巧遇到地震，搖晃得很厲害；房間的電視由左邊的牆角滑到右邊，連床也跟著滑動，走廊外面一片吵雜。後學趕緊告訴前人說：「地震了！」前人躺在床上出奇地平靜，握住後學的手拍拍後學，很鎮定慈祥的說：「沒關係！一下就過了，沒事的。」讓後學再一次深深感受到您的臨事不亂，處變不驚，穩若泰山的修持定力。您老人家在在以您的身體語言教育我們為人處事學修辦之道。

在道場您總是疼著、寵著後學們，從不讓後學們跪著向您老人家參辭駕，但您老人家自己卻堅持地依循道場的傳統禮節，行禮如儀。

모든 일이 다 어저께처럼 눈에 선합니다. 선생님~~선생님께서 중생들을 위해 고뇌를 맡고 고생을 많이 겪었는데 한번도 선생님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대만대학 부속병원에서 장노전인께서 흉막삼출액(肺積水) 때문에 그 액체를 뽑아야 됐는데 저는 선생님을 앓히시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치료할 때 저는 선생님한테 “조금만 참으면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의사님이 거의 20 센티미터의 침을 장노전인 등에 찔렀을 때 전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으실까?” 라고 마음 속으로 은근히 걱정했습니다. 장노전인께서는 평생 동안 이것보다 더 많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이런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정신을 쓸 수 있고 수행전도의 길을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또 한번은 같은 곳에서 선생님 옆에 있는 사람이라곤 저 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렸습니다. 방안에 있는 텔레비전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고 침대도 같이 미끄러졌습니다. 밖은 아주 시끄러웠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시며 제 손을 잡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조금 있으면 괜찮아질거야.”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선생님께서 태산처럼 단단하고 튼튼한 수행 정력을 깊게 느꼈습니다.

도장에서 장노전인께서 항상 후학들을 총애해 주셨어도 우리는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고 참가 사가례를 올리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자기 도장의 전통예절을 지키는 것을 아주 견지하셨습니다.

記得約三十年前，後學開車隨駕出門，您沒告訴後學要去那裡，只是依老前人您的指示行動。到了目的地，進中堂參駕後，看老前人您撲通一聲跪下來參駕前面一位長者，後學傻呼呼的第一次看到如此的景象，愣了一下，不敢輕忽，隨即跟著跪下參駕。後來經引見才知道這位是張道長文運老前輩。

還有一次您身體不適，要出門看醫生，到了中堂，您老堅持要行跪拜禮辭駕，後學攙扶著您，看著您拜沒幾下就喘起來，施點傳師與後學懇請您老鞠躬就好，您還是堅持拜完，後學看在眼裡痛在心裡，淚水掛在臉上。

我們從您身上看到您尊師重道的風範表露無遺。您老人家的嚴以律己、寬以待人，讓後學深感不足與慚愧，您老人家總是以身示道，勝過千言萬語。

老前人啊！從您的舉手投足都展現了我們修道人應有的風範與精神。

而今，春暖還涼，忠恕道院後山櫻花落盡，枝極新露；雖然景色依舊，您老人家的笑聲、呵護聲猶在耳邊，而您卻在我們沉醉於慈祥疼愛中悄悄的離開了。

後學自責，後學深深自責，未能用更多的時間陪伴您，在您的身邊聆聽您的教誨、您的叮嚀，領受您慈祥的關愛與呵護。

아마 30년 전에 저는 장노전인의 지시를 따라서 밖에 나갔는데 장노전인께서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참가례를 올렸습니다. 참가례를 마친 후에 선생님께서는 선배선생님한테 무릎을 꿇고 인사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 장면을 보니까 적응하지 못해서 잠깐 멍하였지만 빨리 선생님을 따라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그분을 소개하자면 장도장 문운선생님입니다.

또 한 번은 선생님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야 했는데 법당에 가서 먼저 참가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고수를 몇 번 안 하셨는데 숨을 돌렸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 시선생님하고 저는 “선생님이 그냥 서서 참가례를 올리면 돼” 라고 부탁했는데 장노전인께서 먼저 꿇어서 참가례를 올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장노전인께서는 언제나 수행의 모범을 알려 주셨습니다.

보면 충서도원 뒤에 있는 산의 봄꽃이 거의 떨어지고 씨를 맺었습니다. 여기는 경치가 옛날에 같고 선생님의 웃음. 자애로운 말씀이 우리 귀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선생님의 사랑에 빠져있는데 선생님께서 이미 떠나가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계셨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을 듣고 사랑을 받아야 했습니다.

老前人，我們敬愛的老前人，
您走了，
走得是那麼輕，那麼的輕，
輕得就像天邊的那朵雲；
而您留下的情，
又是那麼重，那麼的重，
重得像巍峨的泰山。

此時此刻，任何的言語都無法細訴後學們內心的感恩與傷痛；再多的文字都不能表達後學們對您的不捨與思念。

老前人，您用您的一生引領著我們每一個人學習成長、求道修道、明辨是非、知善離惡、感恩惜福、修身養性、廣植福田；您更為了眾生平安，有道可修，日日叩首，為了眾生您擔業受苦，無怨無悔，總是克己復禮，因為我們都是您的心肝寶貝。

老前人您的疼，疼入骨；老前人您的好，道不盡；
老前人您的恩，高如山；老前人您的情，深似海；
老前人，您遺留的風範及精神就是我們最好的標竿，我們會日日抱守，謹記在心的。

老前人，我們敬愛的老前人，您在天之靈一定能夠繼續引領我們在人生的旅程中，用真理認真修辦道，用智慧認真過生活，並承續著 師恩母德與老前人您的大德，讓殊勝大道早日普傳全世界。

永遠懷念您的後學 叩首

선생님,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우리한테서 떠나가셨습니다. 떠나가셨을 때 하늘의 구름처럼 이렇게 가벼웠지만 우리에게 남은 정이 태산처럼 무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감격하고, 아픈 심정을 어떤 말로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상념을 더 많은 글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평생 동안 우리를 광명대도 행으로 이끌었습니다. 중생들이 일관대도를 구도할 수 있고 수도할 수 있게 날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생들을 위해서 원망 없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생님께서는 제일 소중한 보배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뼈에 사무치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장점이 너무 많아서 끝까지 말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은덕은 산처럼 높고 선생님의 정은 바다처럼 깊습니다.

선생님께서 위도하는 정신과 품행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모범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모습을 따라서 영원히 실천하고 기억합니다.

선생님, 우리 경애하는 선생님께서 노모님 옆에 계셔도 우리들은 광명대도 행으로 이끌겠습니다.

선생님을 영원히 상념하는 후학